

결과보고서



이 프로그램은 '2018 서울특별시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성차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서 성차별적인 통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청소년들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성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주체적 성인권 실천을 통하여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폭력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8 서울시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원 사업'으로 성차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서 성차별적인 통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성인권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주체적 성인권 실천을 통하여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폭력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

사업 개요

단 체 명	(사)탁틴내일								
사업명	1719와 함께하는 성차별 없는 마을								
사업목적	• 일상에서 성차별적인 통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다. • 주체적 성인권 실천을 통하여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사업기간	• 2018년 7월 18일 ~ 11월 30일								
사업내용 및 추진결과 (요약)	• 사업 대상 : 서울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 사업 내용 : 자체 개발한 교육 콘텐츠 구성에 따라 학급별로 1차시 교육 • 사업 추진 결과 <table border="1"> <tr> <td>목표 인원</td> <td>실적 인원</td> <td>달성률</td> </tr> <tr> <td>1,250명</td> <td>1,371명</td> <td>110%</td> </tr> </table> - 자문회의 : 1회 - 강사 워크숍 : 1회 - 교육 콘텐츠 제작 : 1회 - 교육 실적 : 4개교 54학급 - 교육 모니터링 : 2회 - 평가회의 : 3회			목표 인원	실적 인원	달성률	1,250명	1,371명	110%
목표 인원	실적 인원	달성률							
1,250명	1,371명	110%							
사업 종료 후 산출될 성과									
단체측면	•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일상적 폭력예방 목적의 성차별 인식개선 교육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음. • 청소년들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성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시정발전 측면	•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추후에도 여성폭력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수 있음. • 교육과 활동이 병행되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의 지원은 서울시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과 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됨.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1) 사업배경

서울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로, 범위가 넓고 다양한 산업 및 상업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다. 그에 따라 거주인구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들의 불안감이 큰 도시임을 부정할 수 없다. 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강간과 성추행, 이를 포함한 성범죄 위험 지수 산출을 한 결과 서울은 전체 성범죄 위험도가 116.9(평균점수 100점 기준)점이었으며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강간 위험도는 103.7점 성추행 위험도는 122.0점으로 나왔다. 강간과 성추행 모두 평균보다 높은 위험도를 보였으며, 성추행의 경우는 전국 최상위였다.

성추행 위험도가 가장 높았던 원인을 추정해보면, 대도시의 특성상 여러 시설물들이 많고, 대중교통 발달 및 이용 빈도수가 높음에 따라 성추행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여성폭력에 대한 뉴스가 많이 배포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느끼게 되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여성폭력은 가부장적 문화의 결과물이기도 하며, 동시에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비폭력적인 문화를 재생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환경이나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처도 동시에 필요하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성희롱 피해 목격 시 피해에 대한 생각에 대해 '울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했다'에 여학생 64.4%, 남학생 32.1%,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에 여학생 5.4%, 남학생 34.0%, '학생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에 여학생 2.9%, 남학생 15.3%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인식차가 크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기를 앞둔 고등학생들에게는 민감성을 높이고 폭력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현실은 입시 및 취업에 집중되는 교육으로 인해 폭력예방에 대한 교육 시수가 매우 부족하며 그나마도 대강당 또는 방송강의로 이뤄지고 교육의 효과 또한 떨어지고 있다. 이에 고등학생 대상 교육이 절실하다.

2) 사업 필요성

1. 현재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수위와 폭력의 유형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성폭력, 가정폭력 외에도 여성혐오,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까지 하루가 다르게 폭력수위가 종류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폭력예방교육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특히 여성은 성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차별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로 전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사회적 과제이다.
3. 여성폭력은 여성 스스로가 예방해야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성차별적인 문화를 성평등한 문화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함께 해야 한다.
4. 여성이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5. 청소년들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성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도와주어야 한다.

3 2018년 여성안심행복마을 사업 교육 계획안

프로그램명	#성평등 #문화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 자	2018년 ○월 ○일	시 간	50분
기관명	○○고등학교	인 원	반별
대 상	고등학생 ○학년	강 사	
목 표	1. 성역할 고정관념이 학습되는 과정을 3가지 이상 얘기할 수 있다. 2. '과한 배려'는 존중이 아니라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의 실천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나의 실천 방법을 찾는다.		
단 계	세부 내용	비 고	시간
도 입	1. 인사 나누기 - 교육 안내	ppt	5분
전 개	2. 성평등 이해하기 - 요즘 흔히 하는 말 말 말 - 차별일까? 동기부여 일까? - 성평등의 의미 - 사례를 통해 본 성에 대한 인식 - '두루상상' 성평등 영상 시청 3. 우리 주변의 성평등 - 성평등에 대한 우리의 현실 - 가정에서 보여지는 평등과 불평등 - 학교에서 보여지는 평등과 불평등 4. 성역할 고정관념 - 일상에서 학습되는 성역할 고정관념 - 나의 행동 돌아켜보기 - 성평등한 문화를 위한 나의 실천 한마디	ppt 포스트잇 필기류	40분
마무리	5. 질의 응답		5분



#성평등 #문화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타킷내일  성소년성문화센터

문화는 한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행동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 사람은 결국 '나'라는 개개인이 모여서 '우리'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사회의 성차별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나의 행동과 사고를 검열해보고 성평등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실천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다.

목차



-성평등에 대해 이해한다



-차별도 폭력이다.

-변화하고 있는 세계



-성역할 고정관념은 어떻게 학습 될까?

-나는 어떤 사람?

-성평등한 삶을 위한 나의 실천방법 찾기

목표



성역할 고정관념이 학습되는 과정을 3가지 이상 얘기할 수 있다.



‘과한 배려’는 존중이 아니라 차별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설명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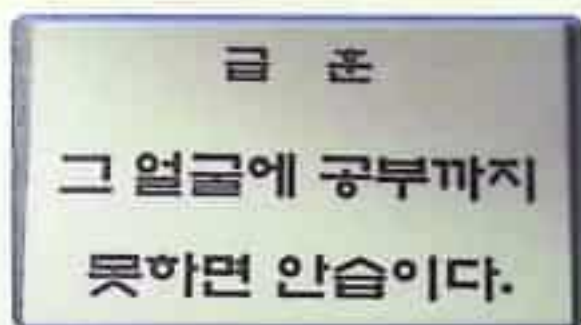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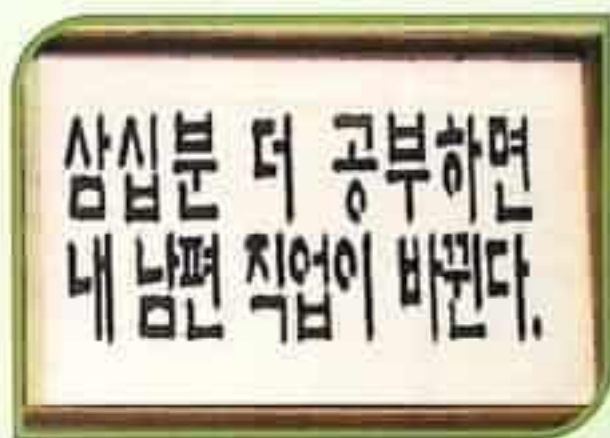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의 실천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나의 실천 방법을 찾는다.



성평등 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우리사회에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집단도 있으며, 일부는 여성상위시대이며, 남성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전제품의 발전은 가사일의 변화를 가져오긴 하였으나 과거에 비해 여성의 역할을 더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여성이 주로 집에서 가사일과 양육을 했다면, 현재는 직장 일까지 해야 하는 시대이다. 또한 가전제품이 발달했다고 하여도, 가사일은 여전히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다. 엄마 목소리가 단순히 크다고 해서 여성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여전히 집에서 가장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은 한 가정을 대표하는 어른의 뜻을 담고 있다. 집안일을 잘 도와줘요 혹은 욕아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 비해 남성이 적은 시간을 할애해도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조모와 함께 사는 가정과 조모와 함께 사는 가정을 둘러보면 외조모가 엄마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조모에 비해 많다.

차별일까? 동기부여 일까?



학교 급훈에 동기부여를 위한 많은 언어들에 쓰여져 있다. 얼핏 보면 재미있다고 생각되지만, 누군가의 입장에서서는 매우 불편하다.

그 불편함은 무엇이 더 우월한 것인지 혹은 열등한 것인지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급훈은 학력차별과 직업차별을 담고 있으며, 두 번째 급훈은 여성은 좋은 직업을 가진 남편을 만나기 위해 공부하는 것으로 폄하하고 있다.

세 번째 급훈은 외모차별을 네 번째 급훈은 경제력의 차별을 드러내는 것이다.

직업, 종교, 국적, 피부색, 연령, 성적지향성, 성별 등 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차별은 지양해야 한다. 차별을 합리화 하는 것은 더 많은 차별과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종국에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차이는 존중하고 차별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삶의 과제이다.

성 평 등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과 상관없이 평등합니다.

여자 혹은 남자라는 이유로 행동에 제약을 받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평등] 사전적 의미: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네이버 사전-

2016년 4월 ‘너는 여자처럼 언제 할거야?’ 라는 비난에
“저는 여자에요. 여자는 원하는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ajol_lama • 활동가

ajol_lama for a long time people made me feel ashamed of my body. then i became ashamed of my body. people wanted me to be weak because thats what a girl "should" be like. i threw away my ambitions and goals. well, i'm not that person anymore. i will always continue to work hard, become stronger, and learn to love myself for who i am, imperfections and all.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보면서 제 몸을 창피하다고 여겼어요. 점점 제 몸에 대한 자신감도 잃게 만들었지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제가 면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자신의 야심과 목표를 포기하라는게 더 이상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더 열심히 하고 더 강해지고 이런 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거예요. 완벽 하지 않아요. #nikewomen

댓글 12 개



좋아요 401,545개



이미지출처: DA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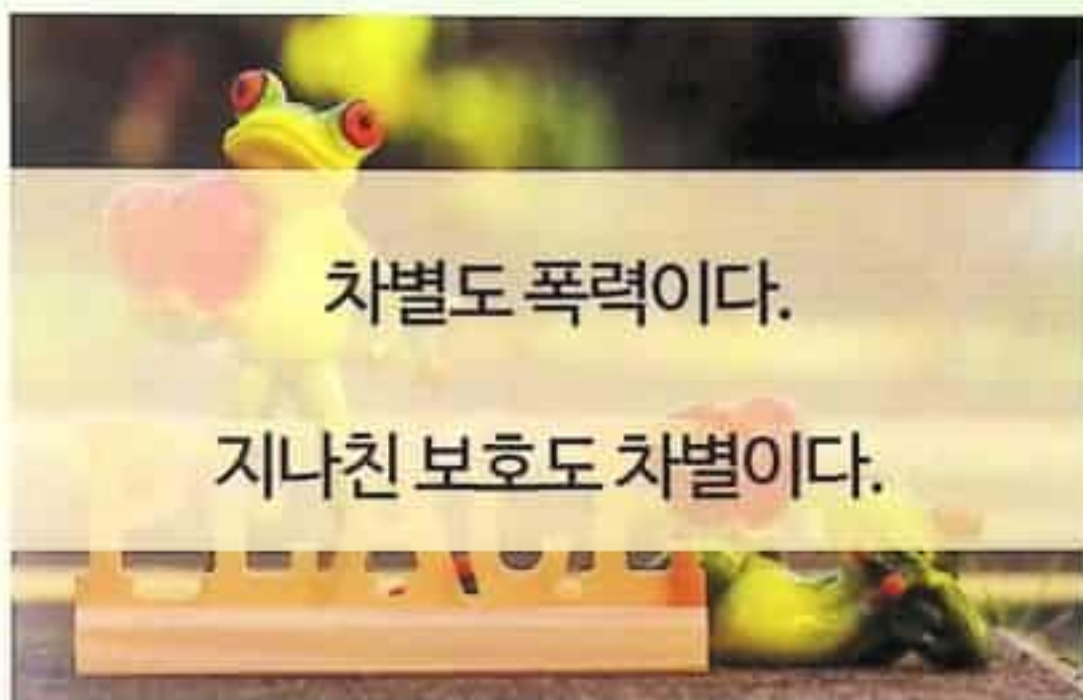
엠버는 여자이기 전에 가수이다. 가수라는 직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엠버를 가수가 아닌 여성으로, 성적으로, 외모로 평가를 했다. 그에 대해 엠버는 수많은 네티즌의 공격으로 자신의 몸이 창피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졌던 시기를 경험했고, 이제 외부의 성차별적인 시선으로부터 당당히 맞서면서 '원하는 스타일로 사는 것이 여자'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개성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막상 개성이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터부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순을 갖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자신의 직업의 주요분야와 상관없이 외모로 평가 받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는 매우 비합리적인 평가이다. 아나운서는 뉴스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아나운서에서 적용되지 않는 의상평가를 여성아나운서들만 받기도 한다. 남성 아나운서의 안경은 '지적임'으로 받아들이면서 여성아나운서의 '안경'은 용모 불량으로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시선에 대해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2017 양성평등콘텐츠 전국공모전] '두루상상' 성평등 교육 영상 시청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성역할이 사실은 매우 이상한 현상임. 성별이라는 특성만으로 '당연'한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다.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온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것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읽어내고, 그 문화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면 이제부터라도 문화를 수정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청소년)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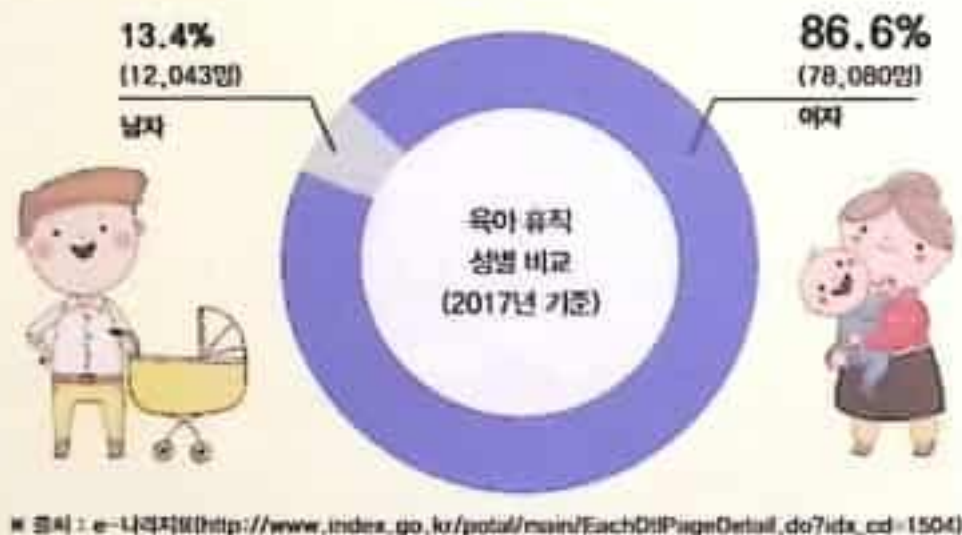


성역할 고정관념은 차별을 만들어낸다.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일을 구분하거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별만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의 영역과 남성의 영역을 나누게 된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과학의 발달로 '힘'에 의존하던 영역의 일이 '기계작동'의 영역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직업에 과도한 성별 경계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 경계가 유지되고 있다. 직장 내에서 남성들이 더 중요한 과업을 맡고 있고(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 중요한 과업을 맡는다는 것은 급여나 승진에서 당연히 차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여성들도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여자들은 안돼(애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조퇴해버리잖아. 일이 익숙해 질만 하면 출산해서 육아휴직을 가잖아 등등의 이유로)

'여자들은 안돼'라는 그 이유는 사실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에게 과도하게 가사와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드시 우리가 깨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보호'의 대상으로 위치되어 있다. 얼핏 보면 '존중'받고 '배려'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수 있으나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보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이며 직장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모든 여성들이 보호받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여성에 대한 일방적 보호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한계점'을 설정하게 하고 남성들도 역시 여성들은 한계가 있다고 설정해 버린다. 또한 충분히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 육아는 엄마만의 책임?



출처:성평등 나눔 나답게, 자유롭게(여성가족부,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육아휴직을 끝내고 온 동료에게 뭐라고 인사할까? 일반적으로 '잘 쉬고 왔어?'라고 인사를 한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일을 안하고 쉬다고 착각하기 쉽다.

육아휴직에 여성들은 쉬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는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받으면서 '여성의 돌봄 노동'은 집에서 쉬는 행위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 '육아'를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직장 내에서 남성스럽지 못하다, 프로의식이 없다라는 평가가 되고, 승진에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남성들도 당연히 육아에 동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않는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

아빠는 집으로 퇴근하고, 엄마는 집으로 출근한다

🌸 회사일은 똑같이, 집안일은 다르게?!

㉞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 출처 : 2016년 연·가정실태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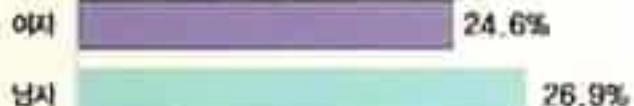
출처:성평등 나눌 나답게, 자유롭게(여성가족부,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아빠들은 야근하고 돌아올 때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다. 야근한 엄마들은 집으로 퇴근하면서 '미안하다'고 한다. 엄마 아빠 모두 똑같이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왜 엄마는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것일까? 집으로 돌아 온 아빠는 오롯이 자신의 쉼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지만 엄마는 가족의 돌봄을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한다. 간혹 아빠가 집안일을 함께 하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자상한 아빠라고 칭찬을 받는데, 엄마들한테는 당연한 것으로 인사조차 없다. 우리는 어떨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가정 내 일을 공평하게 나눠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공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당 해야 할 가사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가사일을 동참했을 때 생색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학교는 어떤가요?

■ 학교생활에서 차별이 있다고 느껴?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



똑같이 잘못해도
남학생이 더 심하게 혼난다.



청소할 때 남학생은 힘든 일,
여학생은 쉬운 일을 한다.



※ 출처 : 2016년 명성영농 안식 조사

학교에서도 남학생 여학생 모두 성차별을 경험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어떤지? 얘기해 보자.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내가 경험했던 성차별이 무엇이 있는지? 누군가 나에게 얘기를 할 때 '여자가 왜 그래?'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성차별이다. 우리는 여자 혹은 남자여서 학교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학생이기 때문에 등교한 것이다. 학교 이름을 정할 때도 남자학교에는 성별을 넣지 않는다. 그런데 여자학교에는 꼭 '여자'라고 성별을 붙인다. 이러한 방식도 성차별의 하나이다. 이는 '남자'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구분하기 위해 '여자'를 넣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에 도입 된 젠더리스(Genderless) 교복을 입은 학생들

자료출처 : DAUM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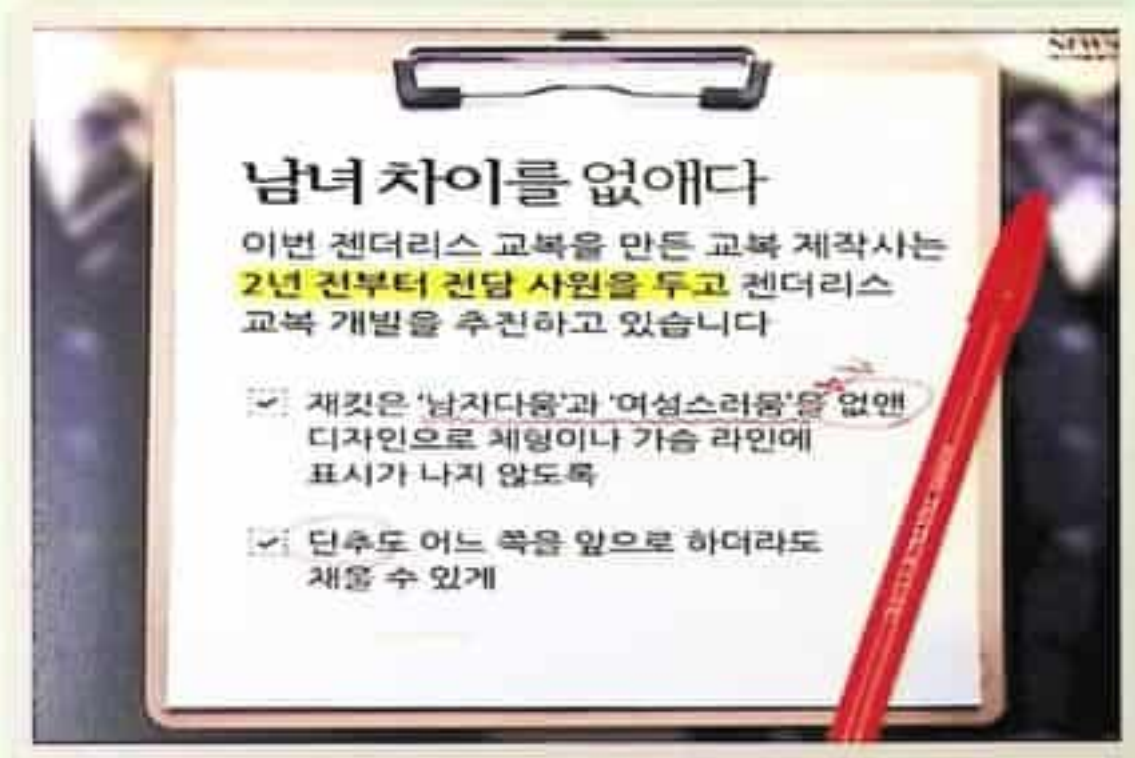
2018년 4월, 일본 치바현 카시와시에 개교한 카시와시립카시와노하(柏市立柏の葉) 중학교의 교복이 꽤 이슈가 되었다. 90년대~2천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것처럼 명품 브랜드 & 유명 디자이너의 교복이라서?

아니다. 놀랍게도 이 학교의 교복은 LGBT(성소수자) 학생까지 고려한, 젠더리스 교복이기 때문이다. 이 학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것은 현재 24세가 된 K씨의 일이 계기가 되었다. K씨는 호적상으로는 여성이지만, 마음은 남성이다. 어릴 적부터 스커트를 입는 것이 싫었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세라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에 매우 큰 위화감을 느꼈다고 한다. 결국 그 위화감은 곧 혐오감이 되었고, 폭력적인 행동을 동반한 등교 거부를 하기도 했다. 병원에 상담을 받은 결과 그녀는 성별불쾌감(성 정체성 장애, GID)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모두 참여한 회의에서 이 교복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물론 일부 반발은 당연히 있었다.



지금 세계는 젠더리스(Genderless)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젠더리스를 선택하고 있다. 남학생, 여학생이 아닌 그냥 '학생'임을 강조하고 자신의 성별과 관계없이 '바지'와 '치마'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출처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321000934272>

교복에서도 여학생복은 신체의 특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허리에 다트선을 넣음으로 인해 허리라인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결국 이런 형태의 교복은 여학생들에게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든다. 단추 위치로도 남성복 오른쪽, 여성복 왼쪽이라는 규칙이 있었음. 너무 무의미 하다.



작년 뉴질랜드의 한 중학교는 학생들이 바지,
스커트 등 **5가지 교복 중 원하는 복장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출처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321000934272>

이런 교복 어떤가요? 나라면 어떤 교복은 선택하고 싶은가요? 질문하고 이유 들어보기...
교복은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생'이라는 공통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교복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젠더뉴트럴(성중립)이라 부른다.’

출처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321000934272>

퍼포먼스 형식의 사회적 운동 사진입니다. 학교에서는 반바지가 명예롭지 못하다고 하였고, 학칙에는 긴 바지와 치마만 나와있어 학생들이 치마를 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운동이 모여 사회가 변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아이구, 많이 아팠어? 호~ 해줄께 ”



“울음 똑! 남자는 씹씹해야 해!”

남자 여자에 관계없이 저 연령의 아동은 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 지어서 성역할을 학습시키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장난감에서 남자 장난감은 경쟁적인 놀이, 폭력적인 놀이가 주를 이루고 여성은 돌봄 놀이를 하게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여자가 무슨 체육반장이니..”
 “여자가 무슨 목소리가 그렇게 크니?”



“무거운 것은 남학생들이 날라”
 “넌 남자가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작니?”



학교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프러포즈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라면
여자친구를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줘야 쥘"



"프러포즈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집은
남자가 구해야지"

우리는 성장과정에서 거의 모든 단계마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서 특정 역할을 하라고 기대되어진다.

그래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남성성 여성성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남자는 가장이라서 중요한 일을 더 많이 하고, 급어도 더 많이 줘야 해”
 “여자들은 야근을 싫어해. 애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조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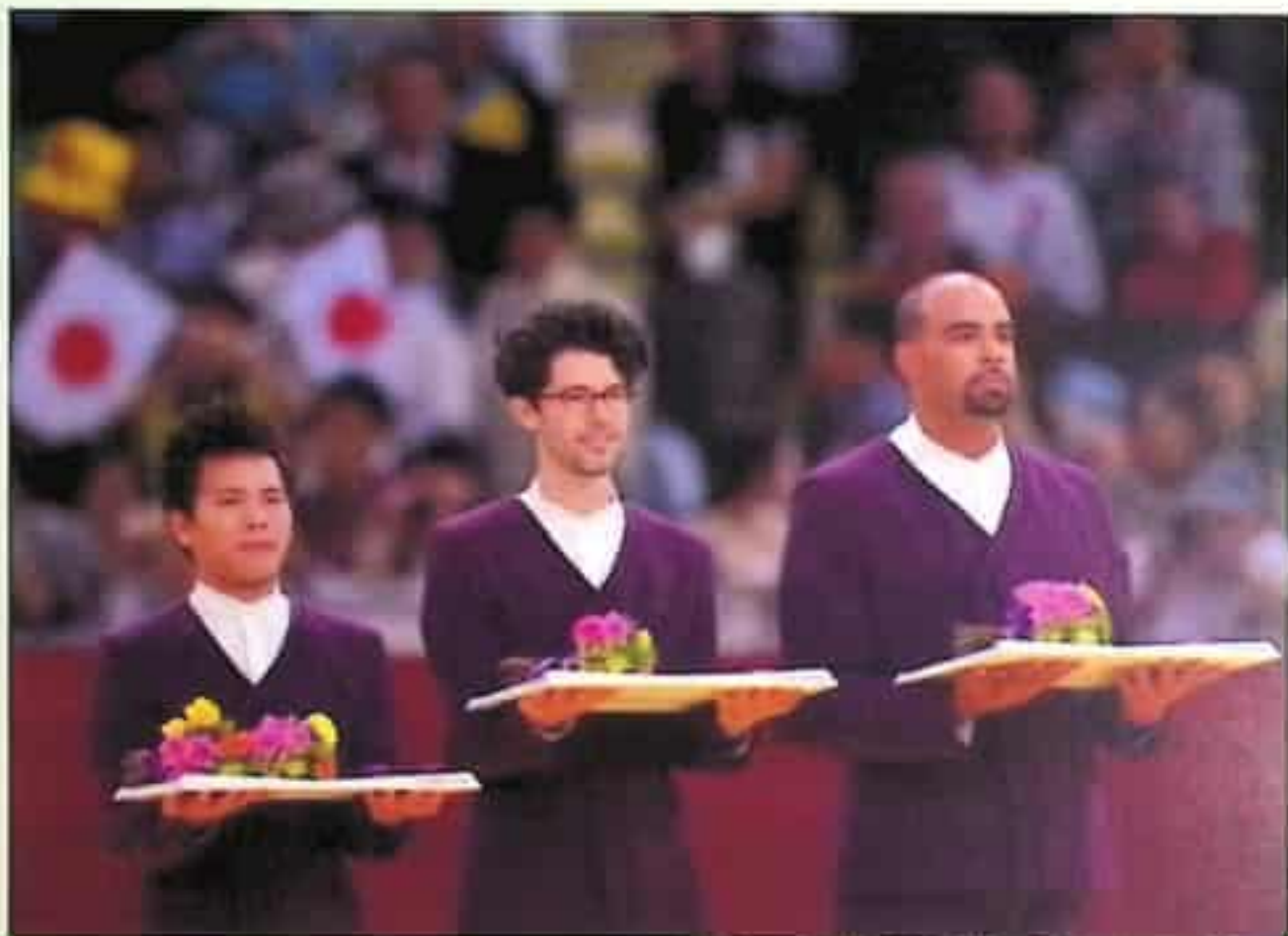
전체적인 우리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여성은 매우 수동적이며, 남성은 매우 능동적인 방향으로 키워지게 된다. 여성은 돌봄의 대상으로 꾸준히 배려되어졌다. 그러나 그 배려의 끝이 결코 여성의 삶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또한 남성들에게 역시 이롭지 않다. 남성들은 과도한 성역할로 인해 능력없는 남성은 무능력하다 비판받고,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힘든 상황에 도래한다. 여성들은 중요한 일을 같이 할 동료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는 여성의 사회적 독립을 어렵게 만들며,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을 당연시하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결국 성역할 고정관념이 차별로 이어지고 성차별은 남성 여성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또한 성에 대한 남녀차별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원인으로 작동된다.



출처:2018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교육자료

이 사진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2012년 런던올림픽 시상식 장면이다. 그 동안 많은 국제행사에서 시상식 도우미는 여성들이 해왔다. 그러나 런던올림픽에서는 남성시상식도우미가 활동을 하였다.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깬 사례이다.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봐왔던 시상식 장면과의 차이점을 찾아볼까요?

키 - 기존 시상식 도우미는 키도 일률적임 / 피부색 - 동일한 피부색으로 구성 / 헤어스타일 - 동일한 스타일로 활동

그 외에도 개인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 사진은 개인의 개성을 존중함(안경, 수염) 사실 시상식 도우미는 남성 여성 누가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여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통념을 깬 영국사례를 보면 남성이 해도 아무런 저항감이나 어색함이 없다.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성별과 무관한 일에도 성별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의식을 못하는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행해왔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성차별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고요?

현오는 특정 대상을 존재 자체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보다 어렵다고, 힘이 약하다고, 말해보거나 괴롭히는 행동이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행동을 돌아켜 확인해 보까요?

항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한 적이 있다.		
외모나 신체조건을 두고 침수를 매거본 적이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놀린 적이 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알잡아 본 적이 있다.		
현적이 낯다는 이유로 무시한 적이 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관 적이 있다.		

출처:성평등 다들 다답게, 자유롭게(여성가족부,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이 부분은 워크시트로 만들어서 작성하고 난 뒤, 2인 1조로 서로 얘기를 나누어 본다.
전체 시간을 고려하여 몇 사람만 발표하고, 발표한 팀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성평등한 문화를 위한 나의 실천 한마디!!

데이트 할 때
남친이 데려다
준다고 하면
괜찮다고 한다.

내 방과 거실
청소는 내가
한다.

여자가 아닌
'나(000)' 다운 것
이 무엇인지 찾아
본다..

포스트 밑에 각자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것을 적어서 폼포드 또는 뒷 칠판에 붙인다.



감사합니다



 **타티내밀 여성여성문화센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고요?

혐오는 특정 대상을 존재 자체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보다 어리다고, 힘이 약하다고, 알잡아보거나 괴롭히는 행동이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행동을 돌아켜 확인해 볼까요?

항 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한 적이 있다.		
외모나 신체조건을 두고 점수를 매겨본 적이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놀린 적이 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알잡아 본 적이 있다.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한 적이 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한 적이 있다.		

☞ 확인한 결과를 친구들과 비교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출처: 성평등 나를 나답게, 자유롭게(여성가족부,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4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활동 결과



분석 결과 외모나 신체조건을 두고 점수를 매겨본 적이 있다가 43%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뒤를 이어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한 적이 있다 22%,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한 적이 있다 18%,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놀린 적이 있다 10%,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무시한 적이 있다 3%,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한 적이 있다 2% 가 나왔다.

다른 것에 비해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외모 평가를 차별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강요되는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 문제점은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기타의견

- 사랑한다 친구야 해해
- 나는 양심이 없다
- 별 생각이 없다
- 성평등을 떠나서 기본 매너다
- 이제부터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성에 대한 차별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 한다
- 내 인생은 좋았구나
-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 서로 도우며 살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 차별은 좋지 않다
- 지금까지 차별 안했다고 해도 내가 끝까지 차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차별 하지 않아야겠다
- 나는 친구를 정말 잘 배려한다
- 애들은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 나는 다른 친구들 보다 상냥하다 친절
- 친구가 장애가 있다고 놀리면 안돼요
- 그렇다가 하나도 안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다문화 가정 열잡아보면 이걸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합니다.

- 착하네
- 차별 하지 말자 모두 다 같은 사람이다
- 어느 것이든 차별은 없어져야합니다
- 성평등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 신체적 차이로 직업을 구별한다. 그것이 여성과 남성을 나눌 수 있을까?
- 이제 성차별을 하지 않아야겠다
- 서로 똑같다
-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할거면 수능 만점 밑은 다 거기서 거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능 만점도 아니면서 성적으로 남 무시 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다른 친구들도 비슷할 것이다
- 애들이 다 다르다
- 평등한 bro들
-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지금은 고치고 있는 중이다
- 서로 똑같다
- 현실은 받아들여야 함
-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열화가 자본주의의 이치이니깐요.
- 차별에 대한 인식들을 없애도록 노력 해야겠다
- 인식이 좋아진 세상에서 살고 싶다
- 인생은 힘들다
- 내가 가장 심하다
- girls can do anythig
- 생각하고 보니까 차별한 적이 많은 것 같다
- 거짓말을 잘 한다
- 친구들도 나와 비슷했다
- 나는 너무 클린 하다 양심 제로
-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치려 노력하고 있고 바꾸려 자세히 배우고 싶다.
- 남자 여자 다르게 생각해본 적 없다
- 다 같은 사람이라는 시각이라고 바라본다

- 성적은 자신이 낮다
- 우리 가정 형편도 그닥
- 다문화 가정인 애랑 친구해 보고 싶다
- 장애가 있어봐야 정신을 차린다
- 여자와 남자는 똑같은 존재다
- 역시 사람들 다 똑같다
- 남자라는 종족은 머리가 안 돌아간다
- 나도 모르는 새에 어느샌가 제 남동생에게 성차별적인 말을 했더라고요
-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차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살면서 한번쯤은 그런 실수 해 볼 수도 있는 거다. 지금부터라도 안 하겠다

5 성평등한 문화를 위한 나의 실천 한마디!

- 차별을 불편하게 느낀다. 불편을 익숙함으로 넘기지 않는다.
- 사준다고 하면 그냥 받는다.
- 내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에 너무 움아매지 않겠다.
- 차별 하지 않기
- 짐 옮길 때 다 같이 옮긴다
- 설거지는 먹은 사람이 한다
- 남자 뷰티 유튜버를 보고 특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나는 여자가 남자가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상대방을 바라 볼 때 여자 남자 보다는 한 인격체로 대하고 존중 한다
- 남의 시선을 의식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
- 남녀 차별 발언을 하지 않는다
- 지금처럼 5:5를 지키거나 금액에 정의를 두지 않는다
- 옷을 자유롭게 입고 다닐 것이다
- 내 빨래는 내가 갠다
-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평등 인식을 알려준다
- 집안 일은 오빠랑 같이 반씩 하기
- 온 가족이 집안일 나눠 하기
- 더치페이
- 성차별 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알려 준다
- 집안일은 여자가 바깥일은 남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남자 여자가 하는 일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 한다
- 친구의 신체에 대해 놀리지 않는다.
- 고정관념 가지지 않기
-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혼자 산다.
- 성별에 대한 차이와 차별을 명확히 구별 해야겠다
- 나는 여자니까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기
- 여자라고 보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자

- 내 방과 내 주변 자리는 내가 청소 한다.
- 그 사람이 가진 조건에 대해 언급 하며 조롱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 남자가 돈 내려고 할 때 막고 각자 먹은 만큼 낸다.
- 흔히 말하는 '여자라고 해야 되는 일'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
- 모두가 평등한 크림 히어로즈를 본다.
- 만약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머리가 긴 남자아이, 츠리닝을 맘대로 입고 다니는 여자 아이를 키우고 싶다 (물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 다른 사람이 성차별적인 말을 하면 지적하고 알려준다.
- 차별적 발언을 하면 살살 기분 나쁘지 않게 잘못된거라고 말해줄 것이다 ^^7
-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먼저 고백하는 걸 망설이지 말기
- 나답게 산다.
-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 성평등에 대해 열심히 공부한다
- 열심히 공부(학업애기아님)하고, 편견에 빠지지 않게 많이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하면..^^::
- '나'다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절대 남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항한다.
- 스스로하자
- 남자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 아바랑 성평등 교육을 듣는다. 평소에 빵은 소리를 많이 해서 같이 살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다.
- 사람을 남자, 여자, 그 외가 아닌 사람 그 자체로 보기
- 성별 아닌 '나' 자신으로 보기
- 남녀 공평하게 대한다. ex)무거운 짐을 둘 다 같이 드는 것.
- 모든 일에 성별을 의식하지 않는다.
- 방 청소는 내가 해야지. 싫은 건 싫다고 확실히 거절.
- '남자'라서 '여자'라서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 내 밥, 방 청소 등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 편견 갖지 않기
- 난 아직도 성지식이 부족하니 더 공부하자

- 말할 때 잘 생각해보고 말한다.
- 내가 실천 할 수 있는 것
- 성차별적인 발언 자제하기 ex) 여자 같아. 넌 남자면서 그것도 못해 등
- 마트 갈 때 아빠에게 전부 맡기지 말고 내 힘으로 들 수 있는 건 내가 들자.
- 성차별적 말을 안 쓸 거다. 여자가 아닌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 나부터 바뀌자(생각, 편견 등)
- 돈을 많이 벌어서 남자친구 맛있는 걸 많이 사준다.
- 들 수 있는 건 내가 든다.
- 더치페이를 한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자기 일을 꾸준히 한다.
- 말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차별적인 발언은 아닌지 확인하고 말한다.
- 여자가 머리를 밀고 외모관리를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남자는 단순하다라는 생각을 버린다.
- 화장실 청소, 내 교복 내가 빨기
- 무의식중이라도 차별적인 생각, 발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 부당한 성차별로 일어나는 사건 청원에 동참한다.
- 나다운걸 찾으며 산다.
- 남자와 여자를 구분지어 말하지 않는다.
-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나 혼자 한다. ex) 가방들기 등
- 남친이 짐들어준다고 할 때 괜찮다고 하기. 엄마한테만 일 맡기지 않기. 남친한테 무서운 놀이기구 타라고 안 하기
- 게임을 해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 사람을 여성, 남성으로 보지말고 사람으로 보자! 여성과 남성만 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저 여자는~저 남자는~(X) 저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여자고 글쓰기를 좋아해 (O)
- 내 짐은 내가 들겠다.
- 내 돈은 내가 벌어난다
- 무거워도 남자한테 물어달라고 하지 않는다.
- 데이트를 할 때 내가 남친을 데려다 준다.
- 나는 성별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 여자를 '아름다움'에 가두지 않겠다.
- 세상이 여성과 남성을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기

- 성평등 실천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스타일을 찾자!
- 남자, 여자로 대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하겠다.
- 남동생에게 성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친구들을 남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다.
- 성별을 나누지 않고 여자와 남자를 '사람'으로 바라본다.
- 내 일은 내가 한다.
- 내 짐은 내가 든다.
- 할 수 있는(내가 해야하는) 집안일을 각자하자.
- 내가 알아서 하자.
- 내 방 청소는 내가 한다.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산다.
- 남자든 여자든 그 자체로 인정하기!
- 성별을 구분하여 바라보지 않는다.
- 무언가 말하기 전에 필터링을 하고 말한다.
- 모두같이 밥상차리는 준비를 하고 요리하기. 명절 때 성별 구분없이 보이는 사람이 음식 준비하기. 벌레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치우기.
- 자유로운 연애, 자유로운 생활
- 엄마가 말하기 전에 먼저 방청소, 옷정리 하기
-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기.
- 자기일은 자기가
- =고 생각하기
- 식사하는 것이나 집안일을 내가 (스스로) 한다.
- 주말 청소와 설거지는 내가 한다.
- 다같이 집안일을 나누어 하기
- 서로 존중하는 연애하기
- 남이 될하든 내가 될하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
-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힘든 일을 할 때 여자라서 너가 하지 말고 남자애한테 맡기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스스로 하겠다고 할 것이다.
- 학교 및 각종 성폭력, 성적차별 고발해시운동에 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생활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노력한다.
- 다름을 인정하기

- 남자가 프로포즈 먼저 안 할 수도 있는거지! 받고 싶음 너가 먼저 해
- 남자는 여자보다 키가 커야 한다는 편견은 버리기
- 남자의 짐을 들어준다.
- 남자,여자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남자친구가 추우면 내 겐옷을 벗어준다.
- 말하기 전에 차별적 발언이 없는지 꼭 생각하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 웬만한 물건은 내 힘으로 든다.
- 내가 할 일은 내가
- 여성다운, 남성다운 것에 갇히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본다.
- 열심히 살아간다.
- 아이들 열평을 하지 않겠다.
- '나' 다운 게 무엇인지 성별에 상관없이 생각해보기!
- 우리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다.
- 더 이상 집안일을 혼자하지 않고 다 같이 할 수 있게 노력하자
- 외모를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 나의방과 거실은 내가 치우겠습니다.
- 항상 성평등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진다.
- 남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 편견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려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자.
- 사촌들에게 선물을 줄 때,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준다!
- 누군가가 차별적인 말을하면 바르게 알려준다.
- 사람을 새로 만날 때 여자 남자를 구분하지 않고 친구를 사귄다.
- 역지사지
- Girls can Do Anything (가부장제 조카^o^)
- 사람을 어떤 잣대로 판단하지 말자
- 차별적 언행을 삼간다.
- 여자가 아닌 나다운 것 찾도록 노력
- 내 짐을 들어준다고 하면 괜찮다고 거절한다. 여자로서의 내가 아닌 나다운 내가 되자.
- 남자를 열심히 봐주지 말자

- 서로 무시하지 않고 다 같이 도우며 산다.
- 무조건 더치페이 하기
- 남친이랑 커플룩하면 나랑 핑크로 맞춤. 데이트 비용은 내가!
- 집안일은 역할 나눠서 다 같이 하자
- 고지식한 옛날의 통 같은 규칙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대화 대상에서 배제시킨다.
- 사람을 보고 아무 생각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
- 배려한다.
- 생각하면서 산다.
- 무시 발언을 하지 않는다.
- 성평등 남한테 시키지 말고 "내가 먼저" 하자
- 역지사지로 생각해 본다.
- 성평등을 위해 차별받는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지지하기.
- 임신부석에 앉은 남성을 보면 꼭 신고 하자
- 겨털 안 밀고 나시 입기
- 명절 음식 만들 때 같이 만든다
- 추석 같은 명절에는 다 같이 치우자고한다
- 평등하게 같은 일하기
- 집안일은 가족끼리 다 같이 해야 한다
- 지하철 탈 때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면 자리를 양보 한다
- 임신부석에 앉은 비임산부에게 (남성) 임신을 축하드린다는 소리 하기. 임신하셨냐고 물어보기
- 집안일을 다 같이한다
- 데이트 할 때 남친이 데려다 주라고 하면 괜찮다고 한다.
-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 외모로 점수 매기지 않는다
-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과 집안일은 나눠서 할 것이다
- 집안일 분담
- 요리도 남녀가 같이하기(번갈아가면서). 집안일도 남녀 같이 하기
- 남을 평가하지 않는다
- 집안일 공동분배하기

-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존중한다.
- 성별 고정관념 생각하지 않고 진정하게 바라보기
- 성평등하다는 생각 가지고 살기
- 남자 다운과 여자다움을 따지지 않기. 옷을 남자가 여자 같이 입어도 고나리 하지 않기. 옷을 여자가 남자 같이 입어도 고나리 하지 않기.
- 성차별 말하지 않기
- 다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기. 여자 남자가 아닌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하기 싫은 일에 대한 변명을 "여자라서"와 같은 사회 신분적 요소에 두지 않는다.
-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자!
- 모든 역할은 그 사람의 의사 여부를 먼저 물어보고 정하기
- 다시는 외모를 평가하지 않겠다.
- 성적 차별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 나만의 스타일대로 살아갈 것이다.
- 차별 발언하는 애들 혼내주기 + 그런 애들 성적으로 모욕주기
- 음식 양이 많다는 이유로 여자는 저런거 다 못 먹어 하지 말기
- 여성 서사 작품 많이 소비 하기
- 남자, 여자라는 이유를 붙이지 말자
- 혐오적이고 비정상적인 콘텐츠를 소비를 재생산 시키지 않는다
- 같이 빨래를 한다
-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본다
- 말 골라서 하기
- 메이드복을 입은 남자를 보면 잘 어울린다고 말해준다
- 남자가 ~한다 여자가 ~한다 라는 투의 말을 하지 않는다
- 남,녀 신경 안쓰고 오로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나'만 사랑한다
- 나다운 것을 찾는다
-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생각
- 남자도 집안 일을 한다
- 성차별 하지 않기
-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 본다

- 게임할 때 여자라고 무시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기
- 여성 게임 유저를 비하하지 않는다
- 여자는 보호 하는 존재가 아닌 동등한 존재다
- 동등하게 대하자
- 조건을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닌 다른 출발선을 존중할 수 있도록 신경 쓰기
- 평등하게 대하기
- 요리를 배우겠다 빨래를 널겠다
- 모두가 동등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
- 키 갖고 놀리지 않기, 엄마 도와주기, 외모 갖고 놀리지 않기
- 차별을 당하거나 차별을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말해 줄 것이다
- 성별에 관한 편견을 버리고 남자답다 여자답게 등에 말도 쓰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참여한다
- 이상한 것 하지 않기
-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나부터 고쳐야겠다
- 성차별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다
- 서로 이해 한다
- 남자 여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고 잘못 알고 있는 친구에게 잘 알려준다
- 평등하게 대한다
- 남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 남녀 모두 동등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 지금까지 했던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 보자
- 남자든 여자든 얼굴로 판단하지 말자
- 성평등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야겠다
- 남자라고 무시 하지 말고 여자라고 무시 하지 말자
- 저녁 준비 하기는 가족이 다같이 해야 빠르다 / 성차별적인 발언은 삼간다
-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는다
-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버린다
- 성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는다
- 전구를 갈 때 아무나 간다

- 말할 때 "남자가~", "여자가~" 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 밥 먹을 때 누구든 서로 먹은거 내기
- 남자가 키작다고 들리지 않는다
-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 하지 않는다
- 스포츠를 같이 한다
- 남자라고 힘 약하다고 안 놀리겠다
- 남자라고 힘이 세고 울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자
- 성평등 의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해야겠다
- 망가진 것을 오빠나 아빠에게 해달라고 안하고 내가 한다
- 내 방과 내가 먹은 그릇들은 내가 청소하고 설거지 하겠다
- 나도 치마를 입어야 겠다 평등하게
- 서로의 역할만 충실하자
- 남자가 집안일을 한다
- 남자라고 울지 말라 하면 따진다
- 나는 남녀노소 안따지고 같이 게임을하겠다
- 남자는 울어도 되니 울 것이다
- 돈은 원래 남자 여자 둘 다 내는거야
- $XX = XY$
- 꽃꽂이를 한다
- 내방 청소는 내가 한다
- 여자든 남자든 힘들면 울어
- 여자와 남자가 같은 무게 짐을 든다
- 성 고정관념을 최대한버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 남자가 화장 하는 것을 아니꼽게 생각하지 말자
- 차별에 대한 의식들을 없애도록 노력 해야겠다
- 남자가 여자를 나누지 않는다
- 차별을 하지 않는다
- 포스터 광고 ㄴㄴ / 교육을 받는다
- 내가 할 수 있는 실천방안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가정일이나 집안일을 남편이랑 같이 한다

- 말 앞에 남자 여자를 붙이지 않는다
- 평등하게 대우 한다
- 남자 여자를 구별, 차별 하지 않는다
- 집안 일은 하루 하루 정해서 정해진 날마다 돌아가면서 한다
- 남성과 여성에게 배려하는 것을 최대한 같게 한다
-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대입시킨다
- 결혼 후 여자 아이를 낳는다면 식식하게 운동선수로 키워보려고 노력 하겠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시켜준다) / 집안일을 안에와 상의하여 자기 역할을 분담한다
- 말에 여자,남자 라는 말을 뺀다
- 색으로 남녀를 구분 하지 않는다
- 나라도 남을 차별 하지 않겠다
- 물건을 들 때는 같이 든다
- 남녀 차별을 안해야겠다
- 우리는 사람이다
- 남녀가 평등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다
- 첫째, 평등하지 않은 발언을 하지 않는다. 둘째,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할 일을 구분 하지 않는다
- 남자는 ~ 안돼 여자는 ~안돼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 서로를 배려하며 능력을 인정한다
- 목격할 시 바로 어른이나 112에 알린다
- 똑같이 대한다
- 남녀를 똑같이 대해 준다
- 서로에게 조심하자
- 서로에게 예민하고 조심하자
- 나라도 남녀차별을 안한다
- 여자가 부탁하면 잘들어준다
- 여자가 돈 벌어오면 거부를 안 한다
- 데이트할때 여친이 데려다 준다고 하면 괜찮다고 한다
- 여자 남자 무시하면 안된다
-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

- 집안일을 똑같이 분배한다
- 남자도 여자도 둘 다 서로 양보 해야 한다
- 성차별적 발언 X
- 집에서 빨래 하는 빈도 늘린다
- 집안일을 다 같이 한다
-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 내지 못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 것
- 집안일 요일별로 정해서 하기
- 남녀가 싸우지 않는다
- 나 하고는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싸움을 그만 한다
- 성별을 떠나서 인간인 나에 대해서 알아보기 ex) 내가 될 좋아하는지 내 스타일은 무엇인지
-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 자기가 할일은 알아서
- 다른 걸 인정하고 도와주고 싶은 건 물어보면 된다
- 남이 한번 호의를 베풀면 나도 호의를 베풀 자
- 데이트 할 때 더치페이 결혼도 더치페이
- 도움이 아닌 함께 하는 자세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든다
-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남녀가 힘을 합쳐 같이 든다
- 회사에서 상사가 여직원에게만 커피를 타오라고 하면 타오지 않는다
- 집안일은 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한다
- 비하하지 않는다
- 서로를 이해한다
- 법을 개정 한다
- 서로를 믿고 의지 한다
- 남성 안전 귀갓길을 만들어야 한다
- 노력
- 교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줬음 좋겠다 (여자는 리본 남자는 넥타이 이런 고정관념 깨기)
- 앞치마도 남성에 맞게 사이즈가 나오고 그랬음 좋겠다

- 어릴때부터 성차별적인 단어나 말을 듣지 않고 하지 않도록. 서로 다르다고 이렇다 고정관념을 없앤다
- 서로를 사람으로써 존중해 준다
- 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 말과 행동 하기 전에 내가 다른 성이었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한다
- 여자든 남자든 같은 사람으로 본다
-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남녀 모두 시킨다
-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을 구분지어서 행동 하지 않는다
- 생각해보고 말한다 / 목소리를 낸다
- 가만히 있지 않기
- 힘든 일도 남자한테만 시키지 말고 같이 한다
- 편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 차별적인 행동하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 비하하지 않는다
- 모두 평등하다고 인식을 가진다
- 말 조심
- 평등한 눈으로 바라 본다
- 서로 무시 하지 않는다
- 내가 남자친구 데려다 준다
- 남자가 항상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차별을 멀리하도록 노력한다
- 남녀평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들고 차별과 차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는 것 같아 좋은 수업으로 들었다
- 차별적인 말 안쓰기
-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남녀간의 평등을 존중하면서 남녀를 떠나 한 사람으로써 바라 보는 눈과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 차가 올 때 충분히 피할 수 있을 때 굳이 옆에서 잡아 당겨 줄 때
-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 남자가 여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것, 꼭 여자만 밤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자도 남자가 위험하지 않게 데려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성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 저는 최대한 성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나 제가 생각한 방법은 여자도 군대를 가서 서로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 남자끼리도 성문화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성차별 사례를 보고 성차별 이야 라고 말한다
- 성차별 의 대해 토론하기
- 결혼을 하면 요리는 제가 할 거예요
- 아내랑 같이 아이를 키울거예요
- 무거운 짐은 힘이 더 센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 남자가 키 작다고 놀림 당한다
- 조심스럽게 행동 한다
- 여자친구가 생기면 집을 안 데려다 준다
- 여자를 혐오하지 말자
- 서로를 배려 존중 한다
- "여자니깐" "남자니깐" 이런 말들을 쓰지 말자
- 못생긴 남자 여자를 싫어 하지 않는다
- 모둠에서 남자끼리 섞여도 적극적으로 행동 한다
- 아빠도 엄마도 일을 하고 집에 오면 힘차게 반겨준다
- 남녀평등 캠페인에 참여한다
- 성평등 주제 책을 찾아본다
- 내 물건은 내가 치운다
- 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겠다
-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자
- 차별하지 않고 놀리지 않는다
- 남녀노소 모두 평등하자
- 나의 숨겨진 재능을 내 맘대로 부릴 수 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그 재능을 못 부린다는 것은 부당하다 즉 부모가 놀랄 정도로 재능을 뽑는다
- 차별적인 상황이 일어날 경우 반박한다
- 엄마 대신 고양이를 돌봐준다
- 나는 겪어본 적이 없지만 차별을 받는다면 개인 또는 국가의 재정, 정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여성 남성 외도 제3,4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젠더 퀴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교육과 자신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성평등 의식 갖기
- 차별 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진다
- 밤 길을 걸을 때 뒤를 쳐다 보고 한다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 남자의 몸을 마구 만지지 않는다
- 나는 외모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겠다
- 성차별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 외모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 장애인 비하발언을 하지 않는다
- 엠버가 글을 올리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응원을 한다
- 혼자 산다
- 상대방을 배려한다 / 비하하지 않는다
- 성소수자 비하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 여성이라고 보호하지 않는다
- 성별로 차별 대우 하지 않고 평등하게 모든지 대할거야
-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자고 말한다
- 말할 때 남자, 여자라는 특정 성별을 지칭하지 않고 사람 이라고 말하도록 한다
- 머리가 짧은 여자를 존중 할 것이다
- 고정관념 없애기
-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해서 고정관념을 깬다
- 성평등 교육을 열심히 듣는다
- 성차별 예방 교육을 잘 듣고 성차별에 대해 박힌 고정관념을 없앤다 / 주변에 성차별을하는 친구가 있으면 고쳐준다
- 집안에서 엄마가 하시는 일을 내가 매번 도와 드린다(실천중)
- 지나가는 여성이 남자 같은 스타일을 하시는 사람들을 멋지게 생각한다
- 내 밥은 내가 알아서 먹기
- 누군가 옷색에 대한 차별 발언 X

- 머리가 짧은 여자를 존중 한다
- 차별하지 않겠다
-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은 응원한다
- 외모 지적 안하겠다
- 직업 앞에 성별을 표시하지 않는다
- 외모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성차별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 외모나 신체 등으로 차별 하지 않겠다
- 키에 대해 비판하지 말자
- 게이를 존중해준다
- 말하기 전에 피해가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 시험 점수 가지고 놀리지 않겠다
- 자신에게 솔직하자
- 여성과 남성 오늘 한 쪽만 편들지 말고 자신만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말기
- 여자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본다
- 역지사지
- 여자 화장실 칸을 늘린다
- 너무 많은 일을 불편해 하지 말기
- 사촌 여동생 선물 사줄 때 여자 장난감 코너도 거리낌 없이 들어가서 사준다
- 남자라고 힘쓰는 일 시키지 않는다
- 결혼 하지 않는다
- 외모 평가 X / 상대방 자신의 능력 내부 요소를 칭찬해주기
- 성평등 도서를 읽는다
- 남녀 상관 없이 행동 한다
- 조금 더 배려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되자
- 겉모습 만으로 사람을 차별 하지 않는다
- 남자라서.. 여자라서.. 남자니까.. 여자니까.. 하지 말기
- 당연한 것과 배려는 구분 할 줄 알아야 한다
- 프로포즈를 굳이 남자가 하지 않고 여자가 해도 된다
- 당연한 것과 배려를 9분 하자

- 선물은 성별에 관련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진정한 선물이다
- 이미 집안일을 내가 하고 있다 (설거지 빨래 쓰레기 버리기)
- 아픈 남자 분들에게 자리를 비켜드려야겠
- 머리를 기른다
- 나도 치마를 입을 수 있다
- 여자든 남자든 같이 축구해요
- 모든 편견 잊어버리자
- 편견을 갖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보기
- 말을 할 때 두세번씩 생각해보고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차별적인 발언으로 들리지 않았는지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계속 생각해서 말한다
- 생각하고 말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살기
- 자기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한다 /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말을 한다
- 내가 먹은 음식은 내가 치워요
- 데이트 할 때 여자 친구가 데려다 준다고 하면 괜찮다고 한다
- 내가 한건 내가 정리한다
- 내가 하고싶은 일 찾는다
-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더 찾아 본다
- 지금까지 했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자
- 시점의 전환을 준다
- 은영 중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차별 담긴 말인지 생각하고 거르기
- 생각지 못한 것에 제대로 성차별 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
-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내려고 할때 나도 내겠다고 말한다
- 친구들과 대화할 때 장애 비하하지 않기
- 운동을 좋아하지만 여자라서 대회같은걸 나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당당히 하고 싶고 당당히 할 것이다
- 모두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자
- 성으로 사람을 보지 말자
- 집안일을 여자가 한다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남자인 내가 하자
- 여자라는 이유로 힘이나 능력에 대해 무시하지 않겠다

- 무거운 짐을 여자와 같이 들겠습니다
- 성, 을 차별하지 않고 / 평, 등하고 동 / 등, 하게 살아가는 세상
- 말하는 중에 "남자는 ~해야 한다"여자는 ~해야 한다" 보다 "사람은"을 쓰자
- 말할 때 성별 언급 하지 않는다

6 만족도 조사 결과

- 사업의 효과성 및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업종료 후 작성
-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 참여자 1,087명 중 남학생 421명, 여학생 666명

문항	내 용	5점 환산	100점 환산
1	교육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4.31	86.3
2	교육 자료가 잘 갖춰져 있다.	4.34	86.7
3	교육 시간이 적절하다.	4.28	85.7
4	교육 내용이 다양하고 흥미롭다.	4.27	85.4
5	교육 내용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4.34	86.8
6	강사가 전문적으로 잘 설명했다.	4.39	87.8
7	강사는 교육생의 질문에 대한 대처 및 태도가 성실하다.	4.42	88.6
8	다른 친구들도 이 교육이 필요하다.	4.39	87.9
9	성차별에 대해 알게 되었다.	4.38	87.5
10	성평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39	87.7
	총 점	4.35	8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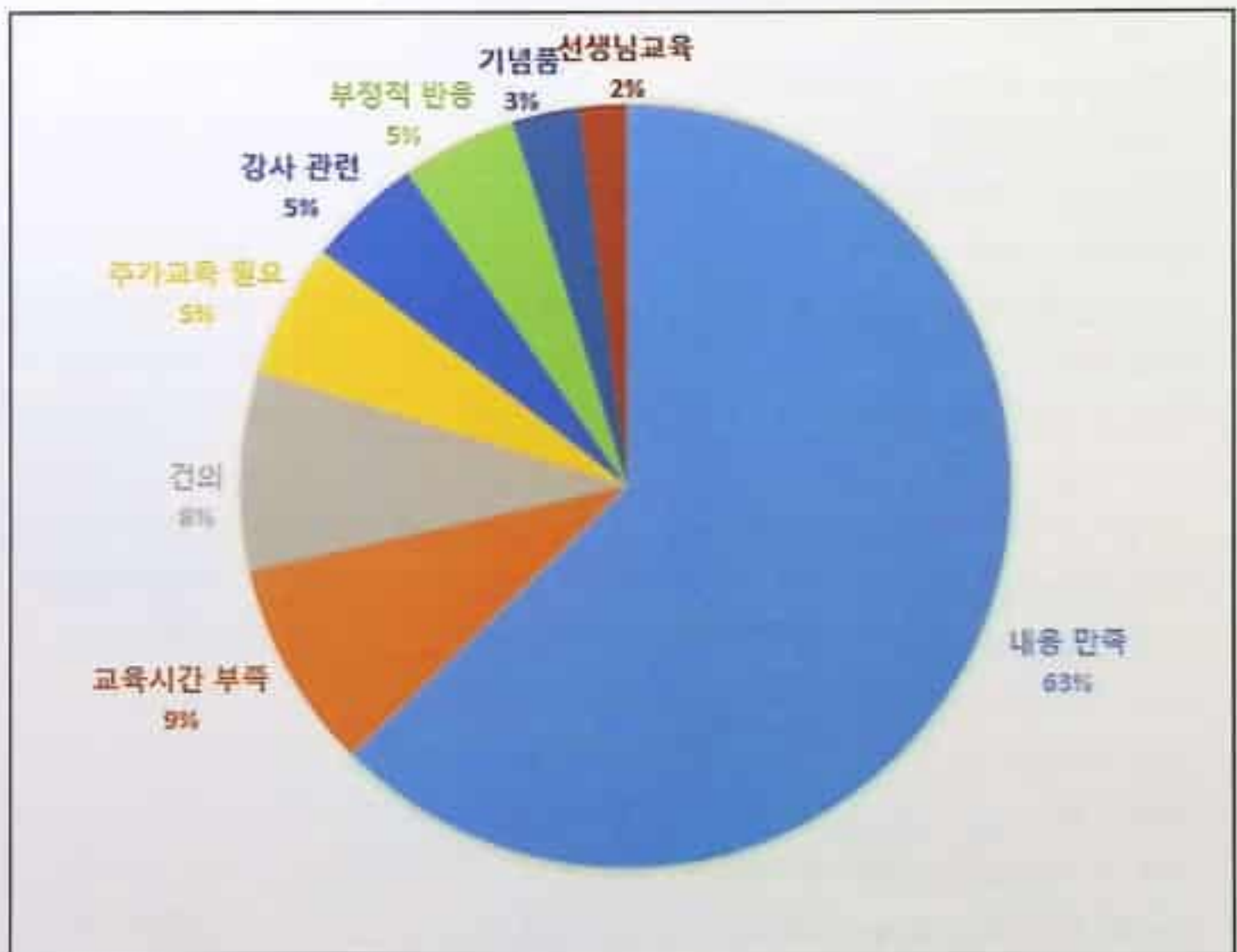


대체적으로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가 고루 나왔다. '교육 내용이 다양하고 흥미롭다(문항4)'에 85.4점이라는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으나 '내용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문항5)' 86.8점, '성차별에 대해 알게 되었다(문항9)' 87.5점, '성평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문항10)' 87.7점 등 내용면에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친구들도 이 교육이 필요하다(문항8)'라는 질문에 87.9점으로 나와 교육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가장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강사와 관련된 것(문항 6.7)으로 보아 사전 프로그램 매뉴얼 워크숍을 통해 강사들의 역량 편차를 줄인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 기타 의견

- 교육에 대한 소감 및 제안할 점을 자유롭게 작성
- 교육 참여자 중 219명 작성



1. 내용 만족(63%)

- 요즘 시대에 시각에 맞추어 친절하게 얘기해 주셔서 좋았다
- 교육 내용이 실질적이고 고등학생의 시각에 알맞은 교육이어서 인상깊었다
- 평소에 느끼는 분노나 불편함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 짱
- 최고예요
- 재미있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이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남자들의 차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꿀잼이었다
-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재미있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선생님 재밌었어요
- 강의 들은 내용을 나중에 생활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페미니즘에 대해 알게 되었다
-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서 성 차별이 아닌 성평등으로 살아야겠다 말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
- 강의 중 틀어 주신 동영상에 인상 깊었어요
- 좋은 수업이었다
- good
-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많이 알게 되었다
- 좋은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Real honey jam
- 성평등 짱
- 조금 더 성평등에 대하여 폭 넓게 할 수 있었다
- 공감에 많이 가는 교육이었다

-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 더 많은 사람들이 성평등을 위해 노력 했으면 좋겠다
- 참이 화제는 즐거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성차별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렵듯이 알고 있었는데 교육을 들으니 더 잘 이해가 되었다
- 강사님 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여러 사례와 함께 들으니 너무 좋았다
- 내가 몰랐던 나의 차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앞으로 고쳐나가고 싶다
- 원래 성평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수업 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됐다
- 이런 교육은 의무적으로 전국 학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된다
- 성평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 성평등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 세상 참
- 교육이 편파 되어 있지 않아서 좋았다 보통 성평등 일하면서 여자가 차별 받는다고 말을 하시기 때문이다
- 불편하지 않았다
- 뭐 재밌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너무 좋아요
- 이해가 잘 되었고 즐리지 않은 수업이었다
- 좋아요
- 짱
- 성차별에 대해 강의도 듣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 성별도 다뤘으면 좋겠다 (바이젠더,젠더리스,에이 젠더 등) 강의 감사합니다
- 페미니즘의 관심이 많은데 현실에서 꾸밈 노동이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 새롭고 기뻐요 앞으로도 이런 강의도 듣고 싶어요
- 더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걸 알려주셨으면 실천하기 좋을 것 같아요
- 좋은 시간 이었습니다
- 너무 유익하고 성평등 교육이 더 많이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좋아요 굿 굿
- 재미있게 수업 해서 좋았다

- 친근히 말씀해 주셔서 편안한 수업을 했습니다
- 판짓을 하다가도 귀가 번쩍 들게 성평등 교육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익해서 좋았습니다
- 재미있었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 교육시간을 좀 더 들려서 더 자세히 하면 좋을 것 같다 영상도 좋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 좋았습니다
- 다 같이 참여하여 인상깊이 남았던 수업이었던것 같다
- 전반적으로 편한 분위기로 재밌게 해 주셔서 더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 양성평등 말고 성평등이라고 말해 주셔서 좋아요
- 오늘 정말 즐겁게 들었습니다
- 선생님 성격이 좋아서 수업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 성평등 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 감사합니다
- 영상도 귀엽고 성차별에 대해 잘 꼬집는 내용이었어서 좋았습니다
- 너무 좋아요
- 성평등 더 좋지만 여자랑 남자는 다른 건 맞다
- 여러 사실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각보다 내가 사는 곳에는 성평등이 여자와 남자를 전부 포함해서 불평등 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 매우 만족스러운 수업이었다
- 남학생들에게 이 교육이 무척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더 많은 학생들이 알게 되었을 좋겠다
-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되지 않고, 사람대 사람으로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없는 시대로 변해가길 우리 사회에 바란다
- 성평등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되어서 좋았다
- 고생하셨습니다
- 성평등의 중요성
- 좋다. 만족스럽다.
- 성차별, 성평등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

- 생각보다 더 괜찮은 교육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 교육이 집중이 잘 된 거 같다
- 예시를 많이 쓰셔서 재밌었다
-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 머릿속으로 성평등을 생각하지만 아직 성차별 시대에 좀 더 익숙해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 너무너무 재밌어요
- 좋았습니다
- 페미니즘과 젠더리스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 성에 억압되지 않고 나답고 자유로운 직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여성 자위, 여성 교육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자서 죄송해요
- 멋진 수업 해 주셔서 감사해요
- 졸지 않고 들었다
- 너무 좋다
- 성평등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로 알게 되었습니다
- 성교육에 대한 것을 잘 알게 되었다
- 좋다
- 성차별은 아무런 이득 볼게 없다
- 매우 좋았다
- 딱 좋노
- 너무 좋아서 제한 할 점이 없다
- 정말이지 너무 재미있었다
- 성차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충분히 깨우쳤다
- 성평등을 중요시 여길 수 없는 요즘인데 이 수업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너무 좋았어요
- 성평등 교육 오 싶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너무 유익했어요 앞으로 더 전문적으로 자주 교육 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좋아요
- 정말 유익합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딸들을 위해서

- 짱
- 성평등과 성 차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음이 있는 교육이었다
- 이런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다
- 한 성별이 아니라 제3 의 성도 다른 성별도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 사랑해요
- 선생님이 짱
- 열심히 안 들어서 죄송해요 그치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양성평등은 남자의 인권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 라는 해석이 매우 인상적었어요
- 성평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 성차별에 대해 잘 알려 주셨다
- 굿잡
- 도움이 된 것 같아요
- 너무 재밌고 유익했어요

2. 교육시간 부족(9%)

- 시간이 짧아 조금 아쉬웠다
- 좀더 시간을 길게 했으면 좋겠다
-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빨랐다
- 더 많은 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 했으면 좋겠다 한 시간이 너무 짧다
- 두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은 짧아요
-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육이었습시다
- 두 시간 해 주세요
- 50 분은 너무 짧아요
- 성은 나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다양한 성이 있고 존중해야 한다는 걸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주세요 강의가 짧아서 아쉬워요.
- 조금 더 교육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를 더 말해 보고 싶다
- 시간이 짧아서 아쉽네요 2교시 정도 하면 좋을 듯합니다
- 시간을 2교시로... 짧아요!
- 수업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
- 교육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간이 모자랐어요. 다음엔 강당에서 강의 받고 싶어요
- 시간이 짧아 아쉬웠습니다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간이 짧다

3. 건의 (8%)

- 다음엔 야동에 대해서도 알려 주세요
- 리벤지 포르노>미디어 성폭력, 몰카>불법촬영으로 단어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 차별에 대한 사례를 좀 더 들었으면 합니다
-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며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옹호하지 말라고 교육도 해주셨음 좋겠다
- 구체적인 자료로 한국 남자의 기를 눌러 주기
- 너무 남녀에 국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쿼어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성차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차별이 있고 그 종류를 알려준 점은 좋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나 앞으로의 인식에 대한 도움이더 구체적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 성평등 교육 일하면서 교육에 중심 내용은 대부분 여성이 받는 불편한 거 차별에 대한 이야기였다. 교육할때도 남성분 여성분 교육 했음 좋겠다. 그리고 좀 불편했다
- 다음부터는 남자들이 받는 성차별 또 강조해주세요. 여고라서 그랬을 수 있지만 너무 여자 여자 했던 것 같아요. 성 차별이 아니라 여성차별 얘기 같은...
- 강의를 잘하셨다. 여자에 대한 것만 이야기가 많다. 여러 예시를 듣고 싶었다.
- 더 많은 젠더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자료를 좀 더 보여주세요
- 여자 쪽에 치우친 듯
- 좀 더 많은 자료가 있음 좋겠고 자료 중 한가지가 조사를 정확히 한 게 아니다
- 선생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의 중에서 의문점이 든 것이 있어 적어봅니다. 트랜스젠더는 젠더 이분법으로 나뉘는데, 결국 사회적 여성성을 타파하지는 페미니즘과 굉장히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코르셋을 조이고

자신을 여성이라고 칭하는데 결국 이들이 사회적 여성성을 억압하는 것과 다르지 않나요?

- 이퀄리즘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사진 중에 이퀄리즘이라고 써있는 사진이 있어서..
- 버스 손잡이가 왜 성인 남성 기준에 맞추어 있다고 하시죠? 정확한 사실도 아닌데 성인 남성도 키 작은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 그룹 활동은 안하는게 좋을 것 같다. 시끄럽고 혼자만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 자료가 부실합니다
- 발표할 때 익명으로~ 우와~
- 학교에서 가 아닌 사회적으로 큰 사건들도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 사회에 나가면 차별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부디 성차별이 없어지고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4. 추가교육 필요(5%)

- 남고에도 이런 교육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 중학교 학생들도 교육 했으면 좋겠다 중학교때는 무지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서
- 자주 하면 좋겠다
- 다른 친구들, 성차별에 무지했던 학생들이 이 강의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
- 이런 교육이 많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다음에 또 와주세요
- 자주 했음 좋겠다
- 초 중 고등학교 대상 말고도 성인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다
- 다음에 또 해 주세요
- 이런 교육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
- 교육이 더 생기면 좋겠고 성에 다른 차별에 대한 사랑이 다양하고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일 등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알린 성차별에 대해 제대로 알려줄 것을 원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업이 나오길 바랍니다
- 조금 더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

- 이런 교육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 한번 더 교육 받고 싶어요
- 성차별 관련 교육을 대폭 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5. 강사 관련(5%)

- 강사 선생님이 친근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좋았어요
-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착하시다
- 선생님이 재밌으시다
- 강사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 선생님이 참 설명을 잘 해 주셨다 성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었고 앞으로 성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올바른 성 문화를 이해하고 실천 해야겠다
-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셨다
- 선생님이 교육을 잘 해 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 선생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집중이 잘 되었고 재미있게 수업을 하였다
-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네요
- 정경선 강사님의 강의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젠더에 관한 강의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선생님이 굉장히 센스 있으시고 리더십이 뛰어나신거 같다
- 선생님이 예쁘시다
- 선생님이 아름다우시다
- 선생님이 친절하셔서 좋았다
- 수업 잘 하시는 것 같아요
- 선생님이 재밌어서 지루하지 않아요

6. 부정적 반응(5%)

- 시험 다음날에 바로 이런 시간은 너무 피곤해요
- 별로야
- 안해도 될 듯
- 이런 교육할 시간에 교칙부터 바꿔라

- 진짜 쓸모없고 학교에 페미 좀 부르지마
- 성평등 교육이지만 반대로 성차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산 아깝다
- 집 가고 싶다
- 빨리 끝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 남혐을 멈춰 주세요
- 안타깝다
- 딱히 성평등 교육 이라는 생각이 안들음

7. 기념품 관련(3%)

- 팬 감사합니다
- 볼펜 하나만 더 주세요
- 팬 굿
- 선물은 펜이 아닌 먹을 것으로
- 펜이 잘 만나와서 짜증나요
- 펜이 잘 만나와요
- 볼펜이 좋았다
- 볼펜은 신의 한수였다

8. 선생님 교육 요청(2%)

- 선생님도 교육해주세요
- 저희 학교 남자 선생님들도 들으셔야 할 듯
- 이런 교육을 선생님들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더 길게 해서 많은 내용을 교육 받으면 좋겠다. 교육은 한 시간 만에 하기엔 내용이 좋았다.
-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 학생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받았으면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 강사후기

2018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

1719 와 함께하는
성차별 없는 마을
성차별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부교 진행(50분, 1차시)

신청기간
2018. 7.20(금)
~모집 마감시

사업대상
서울 지역 내
고등학교 1~3학년

신청방법
facteened
@naver.com
으로 발송
(※ 학교명 - 신청서)

문의 : 1. 국민권익위원회 여성인권팀 (☎20.328.8042)
www.facteen.net

I.SEOUL.U



수업에 적극적이고
자기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멋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순수하고
착해서 너무 재미있었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어른들도 머물러
있지 않고
함께 고민해야 하며
우리들은 그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지 고민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내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천내용들을 작성하며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특강만 연달아 4번째래요.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집중을 위해 목소리를
크게 냈더니 목이 많이 아팠네요.
불편 호응 좋았어요~^^

빨리 끝내달라고
조르면서도 잘 참여
해줬어요!
즐거웠습니다~



2018 서울특별시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발행처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이 현 숙

집 필 진 란 영

편 집 이 상 은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7길 18

전 화 02-338-0376

팩 스 02-3141-9339

홈페이지 www.tacteen.net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 이 책의 저작권은 (사)탁틴내일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 및 발췌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발행처: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이현숙

편집: 이상은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7길 18
전화: 02-338-0376
팩스: 02-3141-9339
홈페이지: www.tacteen.net

이 책의 저작권은 (사)탁틴내일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 및 발췌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2018 서울특별시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